

제일모직, 협력기업 지원 “모범”

동반성장 상생펀드 500억원 조성해 이자 감면 ... 결제기일도 단축

제일모직이 중소 협력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제일모직은 경기도 의왕 R&D센터에서 하나은행과 5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상생펀드>를 조성기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1월10일 발표했다.

펀드 기금은 제일모직이 300억원을 출연하고 하나은행이 200억원을 대출한도로 지원하는 형태로 마련하며 중소 협력기업의 이자감면을 위한 재정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일모직은 협력기업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위해 결제대금 지급 횟수를 월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중소 협력기업에 대해서는 100%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구매담당 임원을 평가하는 항목에 동반성장 실적을 반영하고 협력기업 임직원 직무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하며, 1차 협력기업 뿐만 아니라 2차 협력기업에게도 납품단가, 결제기일 단축, 금융지원 등의 협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이승구 제일모직 경영지원담당 전무는 “동반성장 방안은 중소 협력기업의 입장에서 시급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했다”며 “제도 정착을 위해 협력기업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1/10>